

남북한 접촉지대와 마음의 통합이론 ‘마음의 지질학’ 시론*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구갑우(북한대학원대학교)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만나는 접촉지대(contact zone)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남북한 마음의 통합이론과 그 이론의 한 구성요소인 북한적 마음체계의 이론을 구축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접촉지대와 마음체계의 개념을 정의한다. 둘째, 남북한 접촉지대에 대한 경험적 연구성과를 정리한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마음의 통합의 한 축인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북한주민들의 마음체계를 결정하는 변수들이다. 셋째, 북한적 마음체계에 대한 지질학적 연구성과를 기초로 미시적 수준에서 남북한 마음의 통합이론을 제시한다.

주제어: 남북한 사회통합, 접촉지대, 마음체계, 마음의 통합, 마음의 지질학, 북한적 마음체계, 남한적 마음체계

1. 문제설정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만나는 접촉지대(contact zone)에 대한 실증연구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NRF-2014S1A3A2043571). 귀중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를 통해 남북한 마음의 통합이론과 그 이론의 한 구성요소인 북한적 마음체계의 이론을 구축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그러나 경험적 지식의 무한성을 고려한다면, 귀납적 이론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론이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진술들의 집합이라면, 이론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발명되는 것이기 때문이다.¹⁾ 그럼에도 우리가 귀납적 이론화란 사유과정의 경로를 선택한 이유는, 접촉지대에서 발견되는 남북한 마음체계의 규칙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 없이, 접촉지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위해 필요했던 전(前) 이론의 이론으로의 전화, 즉 이론의 발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남북한의 접촉지대라는 개념에 주목하는 이유는, 남북한의 제도적, 비제도적 접촉지대가 한반도 미래의 거울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접촉지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연발생적 상호작용의 경험 이 남북한 사회통합을 기획하고자 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북한적 마음체계의 기초자료라고 보기 때문이다. 접촉지대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가운데 마음체계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경험적 연구를 진행한 이유는, 사회통합의 궁극적 형태가 행위자들의 마음의 통합이라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접촉지대는 남한과 북한의 마음체계가 만나는 장소다. 접촉지대에서 나타나는 북한적 마음체계는 마치 다양한 마음의 퇴적층과 같은 지층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마음의 지질학’(geology of mind)이란 은유를 사용하는 이유다. 접촉지대의 개념에서 마음의 개념을 경유하여 경험적 연구를 정리한 후 마음의 지질학에 기초하여 미시적 수준에서 남북한 마음체계의 통합이론을 구축하려 한다.

1) K.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Reading: Addison-Wesley, 1979), pp. 4~6.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접촉지대와 마음체계의 개념을 정의한다. 둘째, 남북한 접촉지대에 대한 경험적 연구성과를 정리한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마음의 통합의 한 축인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북한주민들의 마음체계를 결정하는 변수들이다. 셋째, 북한적 마음체계에 대한 지질학적 연구성과를 기초로 미시적 수준에서 남북한 마음의 통합이론을 제시한다.

2. 접촉지대와 마음체계

1) 접촉지대의 개념

비교문화 연구자 프랫(M. L. Pratt)은, ‘접촉지대’를 “고도로 비대칭적인 권력관계의 맥락에서, 문화들이 서로 만나고, 충돌하고, 싸우는 사회적 공간들”로 정의한다.²⁾ 접촉지대는, 식민주의나 노예제 또는 그 유산들이 남아 있는 지역에서부터 학교의 교실과 같은 공간까지, 서로 ‘다른’ 문화들이 만날 때 형성될 수 있다. 접촉지대의 대책에는 하나의 문화가 상상되는 ‘공동체’(community)란 개념이 있다. 인쇄자본주의(print capitalism)를 매개로 경제·주권·연대를 상상하는 근대 민족이 그 사례 가운데 하나다.³⁾ 그러나 만약 상상의 공동체가 사실

2) M. Pratt, “Arts of the Contact Zone,” *Profession*, 91(1991).

3) B.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London: Verso, 1983). 네트워크이론의 은유를 이용한다면, 접촉지대는 서로 다른 문화적 특성을 가진 노드들(nodes)이 비대칭적 링크(links)와 플로우(flows)를 가짐에도 하나의 공동체 또는 네트워크 ‘처럼’ 기능하는 공간이다. 즉, 접촉지대는 하나처럼 기능하지만, 네트워크들의 집합체인 인터넷네트워크(inter-networks) 또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또는 복합네트워크

접촉지대라면, 이 공동체의 매질인 쓰기와 읽기의 제도화는 권력관계의 소산임이 드러난다. 즉 접촉지대란 개념은, 상상됨으로 은폐된 차이와 차이를 무화하는 권력관계가 드러나게 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접촉지대가 사회적 공간인 이유는, 다른 자아, 다른 문화, 다른 공동체의 만남에서 배제와 포섭, 충돌과 소통, 갈등과 공존의 ‘역동성’이 교차하며, 새로운 ‘우리’ 및 ‘우리’와 ‘그들’의 ‘경계’를 만드는 또 다른 ‘정체성’(identity)을 배태하기 때문이다. 공간은 빈 그릇이나 배경이 아니라 권력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를 주조하는 틀이다.⁴⁾ 즉 하나의 공간으로서 접촉지대는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남북한의 접촉지대는, ‘장소’(place)로서의 ‘지리적 공간’과 ‘공간의 제도화’ 존재유무라는 두 변수를 사용하여 유형화할 수 있다. 첫 번째 변수인 장소는, 남북한의 ‘경계’ 그리고 경계에 의해 공간이 획정되는 ‘영토’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영토는, 또한 남북한 각각의 영토 내부 그리고 해외의 장소를 상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남북의 접촉지대는, 만들어진 제약인 ‘게임의 규칙’의 존재여부, 즉 ‘제도화/비제도화’의

라 할 수 있다. 네트워크들의 관계는 강제와 동의의 링크들 — 지배와 피지배, 사회통합의 결절점들 — 에 의해 접합된다. 행위자네트워크이론(actor-network theory)이 지적하는 것처럼, “어떻게 네트워크들이 단일 행위자처럼 보이게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접촉지대의 개념은 유용하다. 어떤 네트워크들이 단일 행위자로 기능하지 못할 때, 공동체가 접촉지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네트워크 밖의 관계는 ‘무한한’ 네트워크의 안을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곤 한다. 행위자네트워크이론에 대해서는 브루노 라투르 외, 『인간·사물·동맹』, 홍성욱 엮음(서울: 이음, 2010) 참조.

4) A. Giddens, *Social Theory and Modern Sociology*(Oxford: Basil Blackwell, 1987), p. 144.

<표 1> 남북한의 접촉지대

장소		제도	제도화	비제도화
경계			(1) 남북협상	(2) 북방한계선(NLL)
영토	남한		(3) 탈북자 거주지역	(4) 비공식 부문 탈북자
	북한		(5) 개성공업지구, 금강산	(6)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
	해외		(7) 유엔, 6자회담	(8) 탈북자의 해외 거주지역

기준을 통해 분류할 수 있다.⁵⁾ 이 변수들을 이용한 도식화가 <표 1>이다. <표 1>의 각 항은 남북한 접촉지대의 사례들이다.⁶⁾

2) 마음과 마음체계의 개념

접촉지대는 사람이 만나는 곳이고, 따라서 마음의 만남을 수반한다. 물리적 접촉지대는, 비가시적이지만 실재하는 마음의 접촉지대이기도 하다. 한 진화심리학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마음을 가졌는가에 대하여 아무리 그럴듯한 의문을 제기해도 결국은 서로가 주고받는 말 때문에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⁷⁾ 접촉지대에서도 말을 통해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언어는 마음의 도구다. 몸의 상호작용도 몸이란 언어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

5) 더글러스 노스, 『제도·제도변화·경제적 성과』, 이병기 옮김(서울: 한국경제연구원, 1996), 13쪽.

6) 이 패러그래프와 <표 1>은, 본 연구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SSK 사업단이 공유하는 전 이론적 진술들이다. 예를 들어, 윤철기·양문수, “북한 연구의 미시적 접근과 남북 접촉지대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16권 2호(2013), 257~258쪽에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다.

7) 대니얼 대닛, 『마음의 진화』, 이희재 옮김(서울: 사이언스북스, 2006).

접촉지대에서 나타나는 남북한 주민의 마음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기 위해, ‘마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직관적으로 마음이 실재함을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알 수 있지만,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가진 주체의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마음의 정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음의 본질을 묻는 질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답을 할 수 있다. 첫째, 철학적 사변 또는 과학적 실험을 통해 마음의 형태와 기능을 찾는 작업이다. 수반되는 질문은, 비가시적, 비물질적 실체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마음은 무엇을 하는가’ 등이다. 둘째, 마음의 관계적 성격을 담지한 마음의 표상인 언어적, 비언어적, 반언어적 ‘행위’(act)의 분석을 통해 마음의 본질에 다가설 수 있다. 접촉지대의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나듯, 행위는 ‘진지한’ 수행과 ‘무대화된’ 수행, ‘타당한’ 또는 ‘부당한’ 또는 ‘일시적’ 행동 등 양가적인 모순의 형태로 나타나곤 한다.⁸⁾

마음의 개념사는, 마음이란 무엇인가란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두 접근을 통합하는 한 방법이다. 마음은 무시간적(timeless) 개념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진화의 산물이고, 마음의 개념도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⁹⁾ 개념사는, “한 개념의 역사에서 당대의 경험공간과 기대지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그 개념의 지속과 변화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한 개념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비동시적인 것

8) 행위의 복잡성은 자크 데리다, 『문학의 행위』, 정승훈·진주영 옮김(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3).

9) 대니얼 대닛, 『마음의 진화』; 아지트 바르키·대니 브라워, 『부정본능』, 노태복 옮김(서울: 부키, 2015). 진화심리학은 동물을 포함한 행위자의 ‘의도성(intentionality)’을 마음의 본질로 포착한다. 인간이, 필멸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부정’의 과정에서, 서로를 의도성을 가진 독립적 존재로 이해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의 동시성에 주목한다.”¹⁰⁾ 특히 개념사가 텍스트와 언어를 연구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언어라는 마음의 도구를 통해 외부환경을 내부 환경에 담을 수 있는 인간생물의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의 마음을,¹¹⁾ 즉 ‘마음의 마음’을 읽기 위한 유용한 방법론일 수 있다.

개념사의 시각을 직유하면, 마음의 개념사는 마음의 사회사를 위한 이론적 전제다. 마음의 개념사는, 한국어 ‘마음’의 기능적 등가물들 — 중국어의 心, 일본어의 こころ, 영어의 mind 또는 heart, 불어의 cœur 등등 — 을 사회사적 맥락 속에서 검토하고, 각 개념들의 전개과정을 비교하는 작업이다.¹²⁾ 그러나 개체, 집단, 사회, 국가, 지역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마음‘들’을 개념사적 방법론으로 포괄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특정한 ‘권역’을 설정하고 그 내부에서 ‘평균적’ 마음의 개념을 탐색하는 것이 한 대안이다. 이 경우에도 개별적 마음에서 평균적 또는 집합적 마음을 추출하거나 평균적 또는 집합적 마음을 개별적 마음과 등치할 때, 개별적 오류와 생태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¹³⁾ 다시 언급하겠지만, 우리는 평균적 또는 집합적 마음을 마음체계의 개념으로 포착하려 한다.

마음의 개념연구는, 권역을 동양과 서양으로, 그리고 동양의 철학

10) 라인하르트 코젤레, “개념사와 사회사,” 『지나간 미래』, 한철 옮김(서울: 문학동네, 1998).

11) “남에게 자기 생각을 숨기려고 발명한 것이 언어다.” 자기의식의 발전은 남의 마음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한 가설을 개발하고 검증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대니얼 대닛, 『마음의 진화』.

12)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을 이론화하기: 기초개념들과 설명논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8권 4호(2014), 183쪽.

13) ‘개별적 마음에는 잔여지만 핵심일 수 있는 남는 것이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은 또 다른 천착의 주제다. 주체의 호명이 이루어지더라도 모든 대상이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적 전통을 유학과 불교로 나누는 방식을 진행되고 있다. 물론 이 권역 설정에 누락되는 부분들도 있다. 예를 들어, 이슬람 권역이나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지역 등에서 나타나는 마음연구를 접하기란 쉽지 않다.¹⁴⁾ 한반도적 맥락에서 마음의 개념사 연구는, 근대 이후 마음개념의 수입원이었던 서양철학적 전통과 근대 이전 한반도적 마음의 반영하며 주조하는 역할을 했던 동양철학적 전통이 교차하는 영역이다. 다른 한편 마음의 개념은, 심리학과 인공지능을 연구대상에 포함하는 융합학문인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의 연구대상이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답은 철학사와 현대의 심리학과 인지과학 두 갈래에서 찾아질 수 있다.

동서양의 철학적 전통에서 마음은 ‘주체’와 연관된다. “서양의 철학적 전통이 인식의 주체, 사유의 주체로서의 마음에 천착”했다면, “동양에서의 마음이란 인식과 사유를 넘어서는 종교적 완성의 주체”이기도 했다.¹⁵⁾ 즉, 세계에 대한 인식과 그 인식에 기반한 행위를 하는 ‘주체’가 있다면, 그 주체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마음은 몸과 더불어 주체를 구성하는 한 요소다. 데카르트에서 시작된 서양 근대에서 의식이 마음과 등치되면서 마음이 독립된 실체로서 주체를 구성하는 요소였다면, 동양적 전통에서는 마음으로 번역되는 심(心)은 “나의 성격과 영역, 역할에 대한 규정의 체계”로, “임금”으로

14) 이슬람 바로 알기를 위해 기획된, 마크 A. 가브리엘,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마음 엿보기』, 최상도 옮김(서울: 글마당, 2011)가 예외적 제목을 달고 있다.

15)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엮음, 『마음과 철학: 서양편 상』(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엮음, 『마음과 철학: 서양편 하』(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엮음, 『마음과 철학: 유학편』(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엮음, 『마음과 철학: 불교편』(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의 ‘발간사’ 중 한 구절이다.

표현할 정도로 주체를 규정하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착한 삶’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규범적 구성요소였다.¹⁶⁾

마음의 개념과 관련하여 동서양의 철학적 전통을 관통하는 두 점은, 마음과 몸의 관계 그리고 마음과 외부세계의 관계다. 서양의 고전적 철학전통에서는 마음과 몸이, 서로 대립되는 범주이면서도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모순적 진술로 인간이란 주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했다.¹⁷⁾ 다른 한편, 유학적 전통에서 심이란 몸의 중심을 의미했다. 따라서 심은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는 일원론적 시각을 내재하고 있었다. 맹자(孟子) 이래로 심학(心學)에 제기된 문제는, “신체에 의존하면서 동시에 신체를 주재한다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 아닌가”였다. “심은 단순히 심장인 것이 아니라 외부세계와의 감응을 총괄하고 주재하는 신경생리학적 중심인 동시에 신체성을 극복하고 규제하여 도덕적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사유·도덕 기관으로서의 정신적인 성격을 지닌 마음이었다.”¹⁸⁾

유학적 전통에서는 마음을 반응과 계산이 포함된 지각으로 정의하고, 도덕법칙과 같은 이(理)와 개인의 욕망과 같은 기(氣)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기가 합쳐진 것으로서의 마음을 “선한 반응과 행위를 이끌어내는 마음”으로, 기로서의 마음을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는 마음”으로, 이로서의 마음을 “옳고 그름을 계산하는 마음”으로 정리했다.¹⁹⁾ 서양적 근대와 마주하기까지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마음의 개

16) 정원재, “유학에서 보는 마음: 거울과 저울, 또는 사랑과 앎의 변주곡,”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엮음, 『마음과 철학: 유학편』.

17) 강진호, “마음을 이해하는 서양철학의 세 가지 전통,”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엮음, 『마음과 철학: 서양편 상』.

18) 문석운, 『동양적 마음의 탄생』(과주: 글항아리, 2013).

19) 정원재, “유학에서 보는 마음.”

념을 둘러싼 논쟁의 성과였다. 반면 서양적 근대에서의 마음의 개념은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질문의 연장이었다. 대표적으로 데카르트(R. Descartes)는, 마음과 몸의 이원론을 제시했다. 나와 동의어인 마음은 그 본질이 생각하는 것인 실체이고, 어떠한 공간도 물질적인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전형적인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 몸이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은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²⁰⁾

데카르트의 마음개념은 전형적인 신을 대체하는 이성중심주의라 할 수 있다. 신약성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한처음에 말씀(the Word)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를 떠올리게 한다.²¹⁾ 데카르트에 따르면, 마음은 비신체적 실체였다. 마음은 그 기능으로 정의되는데, 생각하는 기능이 핵심이었다. 몸과 마음의 이원론은, 마음을 비공간적(non-spatial)인 것으로 정의하게 했다. 물리적인 것의 특징이 연장(extension)이라 할 때, 데카르트의 마음은 점이나 소립자처럼 공간적 위치(location)는 있지만, 공간적 연장은 없는 실체로 정당화될 수 있었다. 데카르트의 마음에 관한 정의는 “기계 속 유령”을 상정하는 것과 비슷했다.²²⁾

데카르트보다 20여 년 늦은 시대를 살았던 파스칼(B. Pascal)은 기계

20) P. McLaughlin, “Descartes on Mind-Body Interaction and the Conservation of Motion,” in Tom Sorell, ed., *The International Library of Critical Essays in the History of Philosophy: Descartes*(Brookfield: Ashgate, 1999). 물론 데카르트가 이원론을 절대적으로 옹호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데카르트는, 배의 도선사처럼 내가 나의 몸속에만 거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21) 한국에서 발간된 『가톨릭성경』의 번역이다.

22) M. Rowlands, *The New Science of the Mind: From Extended Mind to Embodied Phenomenology*(Cambridge: The MIT Press, 2010).

라는 은유를 사용하면서도 마음과 관련하여 이성보다는 감정에 초점을 맞추었다.²³⁾

우리는 정신이면서 또 그만큼 자동 기계다. 그러므로 설득에 사용되는 수단은 증명만이 아니다. 증명된 사물이란 얼마나 적은가! 증명은 오직 이성만을 설득한다. 습관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신뢰받는 증명을 이룬다. 습관은 자동 기계를 기울게 하고 자동 기계는 무의식중에 정신을 이끌어 간다. ... 습관은 억지도 기교도 이론도 없이 사물을 믿게 하고 우리의 모든 기능을 이 믿음으로 기울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 속에 빠져들어 간다. ... 이성의 움직임은 완만하고 수많은 관점에서, 그리고 수많은 원리 위에서 이루어진다. 이 원리들은 항상 눈앞에 현존해야 하는데 이성은 이 모든 것들을 간직할 수 없으므로 오래 몽롱해지거나 갈팡질팡한다. 감정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감정은 순식간에 발동하고 늘 움직일 태세가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감정 안에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비틀거릴 것이다.

마치, 유학적 전통에서 반응과 계산 가운데 어느 편이 주체를 가능하게 하는 마음의 본질인가를 연상하게 한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 감정과 이성 어느 편이 마음의 본질인가를 묻는 것이기도 하다.²⁴⁾

23) 파스칼, 『광세』, 이환 옮김(서울: 민음사, 2011). 인간이란 종이 가지는 마음은 특이한데, “솔직히 다른 생물 중 가운데 인간처럼 어떤 것에, 심지어 어떤 책에서 읽은 사상에 목숨을 걸고 목숨을 잃기도 하는 종이 또 있을까”라는 질문은, 인간이란 종의 마음의 본질이 이성보다 감정에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리드 몬터규, 『선택의 과학: 뇌과학이 밝혀낸 의사 결정의 비밀』, 박중서 옮김(서울: 사이언스북스, 2011).

24) “이성을 마비시키는 감성 능력은 아마도 우리의 진화 과정에서 핵심 부분이었을” 것이다. 아지트 바르키·대니 브라우, 『부정본능』, 51쪽.

다른 한편, 정신과 물질을 서로 독립적 실체로 생각했던 데카르트의 이원론은 정신과 물질 어느 한편에서 다른 것을 도출하는 관념론과 유물론의 대립을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유물론의 완화된 표현인 물리주의(physicalism)를 지지하는 철학자들 내에서도 마음현상이 물질적 속성으로 환원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²⁵⁾

인공지능의 진화가 마음의 한 구성요소인 계산을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인지과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에 비유하곤 한다. 인지과학자는 마음에 관한 질문에 대해 컴퓨터적 접근을 하는 이들로 정의되기까지 한다.²⁶⁾ 인지과학에서는 마음연구를, 뇌 속에 존재하는 ‘마음과정’(mental processes)에 대한 연구라 생각한다.²⁷⁾ ‘정신생활(mental life)의 과학’이라는 심리학의 고전적 정의도 같은 맥락이다. 즉 우리의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관찰하겠다는 것이다.²⁸⁾ 예를 들어 인지과학의 한 은유로 마음과정은 지각, 기억, 생각, 추론 등등이 뇌의 하드웨어 속에서 실현되는 추상적 프로그램이다. 전형적인 데카르트적 인지과학이 마음을 연구할 때 고려하는 비유다.²⁹⁾

그러나 다시금 서양철학에서 반복되었던 몸과 마음을 둘러싼 논쟁이 인지과학에도 투사되고 있다. 비데카르트적 인지과학은 유물론적이다. 마음을 비물리적 실체로 정의하지 않는다. 정신적 상태와 과정

25) 김기현, “환원적 물리주의,”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엮음, 『마음과 철학: 서양편 상』.

26) D. Borchert, ed., *Encyclopedia of Philosophy* Vol. 2(Farmington Hills: Thomson Gale, 2006), p. 297.

27) M. Rowlands, *The New Science of the Mind: From Extended Mind to Embodied Phenomenology*(Cambridge: The MIT Press, 2010).

28) G. Butler and F. McManus, *Psychology: A Very Short Introduction*(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29) M. Rowlands, *The New Science of the Mind*.

이 순수하게 뇌 속에서 발생한다는 주장도 거부한다. 마음의 일부는 그렇지만 전부 다는 아니라는 것이다. 마음상태와 과정은 뇌 속에서 발생하는 어떤 것들일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우리의 몸에서 부분적으로는 우리의 몸 밖에 있는 세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것이다.³⁰⁾

비데카르트적 인지과학은 네 가지 마음을 상정한다.³¹⁾ 첫째, 신체화된(embodied) 마음이다. 신체화된 마음은 뇌과정과 더불어 몸의 구조와 과정을 포함한다. 심리적 과정은 몸의 공헌 없이 완성되지 않는다. 신체화된 마음은 세 종류로 구분된다. 첫째, 지식적(epistemic)이다. 마음과정이 위치한 몸의 구조를 이해함이 없이 인지과정의 성격을 알기란 불가능하다. 인지가 뇌 속에서 발생한다는 주장도 사실 신체화된 마음과 다르지 않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몸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를 본다. 둘째, 존재적(ontic)이다. 인지과정이 몸의 구조에 의존한다는 의미다. “몸은 내가 숨기려는 비밀을 얼굴을 붉히거나 손을 떨거나 땀을 흘려서 기어이 드러낸다.”³²⁾ 셋째, 다른 존재적 의미는 몸의존성보다 구성(constitution or composition)을 강조한다. 몸의 구조, 예를 들어 귀 사이의 거리가 인지과정을 부분적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둘째, 연장된(extended) 마음이다. 유기체의 마음과정 일부가 세계에 대한 행동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이다. 세계에 대한 행동을 통해 외부 구조를 조작하고 이용하며 변형한다는 의미다. 셋째, 내재된(embedded) 마음이다. 인지과정이 환경 속에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존재적 테제로 연장된 마음이 구성이라면 내재된 마음은 의존이다. 넷째, 작동적(enacted) 마음이다. 물건을 본다는 것은 그것을 만지는 것과

30) *ibid.*

31) *ibid.*

32) 대니얼 데닛, 『마음의 진화』.

유사하다. 네 가지 마음은 결국 신체화된 마음과 연장된 마음의 ‘결합된(amalgamated) 마음’이다. 즉 존재적 테제로 인지과정이 부분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인지과정은, 신경구조와 과정, 몸의 구조와 과정, 그리고 환경구조와 과정의 결합이다.

결합된 마음이 성(性), 정(情), 의(意), 지(志)를 모두 포괄한다고 할 때, 마음의 활동은 기능주의적(functionalist) 시각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이해하고, 사용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정보처리체계(information processing system)일 수 있다.³³⁾ 기능주의적 시각에서 마음이 ‘하는 일’은 주체의 호명이다.³⁴⁾ 이 ‘집합적’ 마음은, 특정한 정치경제적 국면에서 구조화되어 주체를 형성하는 하나의 ‘레짐’(regime)으로 등장한다. 마음의 레짐은, “주체를 만들어내는 담론적 혹은 비담론적 요소들의 네트워크이자, 권력의 특수한 요구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특정 시대에 특정한 방식의 인식과 실천의 주체들을 걸러내고, 빚어내고, 결절시키는 구조를 가리키는 일종의 장치라 할 수 있다.”³⁵⁾ 우리는 마음의 레짐이라는 개념을 수용하지만, 특정 국면에서의 마음의 레짐과 더불어 규범적 지향인 마음의 통합을 위한 ‘공동의’ 필요와 행동을 포함한 보다 구조화된 포괄적 개념으로 ‘마음체계’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마음의 ‘체계’는, 국제관계이론을 원용한다면, 행위자들 사이의 규칙, 기대, 처방, 의사결정절차의 틀을 지칭하고 분명하게 정의된 ‘이슈영역’(issue area) 안에서 만들어지는 레짐과, 상호성의 원칙에 기초하

33) 신현정 외, 『마음학』(서울: 백산서당, 2010); G. Butler & F. McManus, *Psychology: A Very Short Introduction*(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34) 심광현, 『맑스와 마음의 정치학: 생산양식과 주체양식의 변증법』(서울: 문화과학사, 2014).

35)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파주: 문학동네, 2009), 22~24쪽.

여 협력적 관계를 수립하는 데 필요한 공동의 인식과 행동을 동시에 포착하기 위한 개념이다.³⁶⁾ 즉, 마음체계는 자아를 호명하는 이데올로기, 신화, 사상과 같은 것들이다. “근대적 주체는 우연한 사건과 상처를 필연적인 것으로 떠맡는 행위에 의해서 비로소 주체가 된다.”³⁷⁾ 물론 이 연구에서 마음의 체계는, 보편적 개념이 아니라, 접촉지대라는 ‘특정한’ 시공간과 ‘특정한’ 이슈영역에서 주체의 형성과 행위자를 제약하는 지시적, 규범적 개념이다. 특정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서 나타난 ‘속물주의’(snobbism)나 남한에서 경제적 양극화의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처럼, 마음체계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기 위해서다.

3. 남북한 접촉지대 연구와 마음체계의 실증

남북한 주민은 국내외의 접촉지대에서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고 있다. 그 관계에는 한반도의 분단이 반영된다. 분단이란 조건 때문에 남북한 사람들의 접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 이후 탈북자가 증가했고, 그 결과 한국 및 해외에서 남북한 사람들의 접촉면이 증가했다. 또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 대북 화해협력정책이 추진되면서 남북한 주민의 교류가 증가했고, 따

36) 레짐의 정의는, S.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체계에 대한 정의는, 평화체계란 개념을 사용했던 D. Mitrany, *A Working Peace System*(Chicago: Quadrangle Books, 1966) 참조.

37) 박가분, “변신하는 리바이어선과 감정의 정치,” 『창작과 비평』, 제42권 4호 (2014).

라서 남북한 주민의 접촉지대도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도 제한적이지만, 남북한 주민의 교류와 접촉은 진행되었다. <표 1>과 같은 접촉지대에서 나타나는 남북한의 주민의 마음체계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몸’의 체제전환을 한 탈북자들과 남한 사람들의 관계다. 국내 외의 접촉지대에서 탈북자는 모두 ‘사회적 소수자’의 특성을 지닌다. 반면, 한국사회의 접촉지대에서 남한 사람들은 주류와 다수가 된다. 해외의 접촉지대에서는 남한사람들도 탈북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소수자가 된다. 따라서 국내의 접촉지대와 해외의 접촉지대에서 남북한 사람들의 권력관계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달리 표현한다면, 접촉지대의 ‘공간적 효과’가 남북한 주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국내의 접촉지대에서 남한사람과 북한사람의 만남과 마음체계의 변화는, 인천 남동구 탈북자 집단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생활공간에서의 관계와 직장에서의 자본-노동 관계 등을 살펴본다. 해외의 접촉지대의 사례는, 영국 뉴몰튼 코리타타운에서 발생하는 남북한 이주민들의 상호작용이다. 두 접촉지대 사례에 대한 실증연구를 토대로 탈북자의 신체화된 마음과 연장된 마음의 체제전환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국내의 접촉지대인 인천시 남동구는 한국사회의 구 단위에서는 탈북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특히 임대아파트가 집중된 논현동 일대는 북한 출신 주민들의 가시성이 두드러져 때때로 ‘작은 북한’이라고도 불린다.³⁸⁾ 그러나 ‘작은 북한’은 탈북자의 밀집 때문에 발생한 하나의 비유다. 실제로는 다수의 남한주민이 일상을 영위하고

38) 인천 남동구의 사례는, 이수정, “접촉지대와 경계의 (재)구성: 임대아파트 단지 남북한 출신 주민들의 갈등과 협상,” 『현대북한연구』, 제17권 2호(2014).

있는 지역이고, 중국의 조선족과 한족 그리고 귀국 사할린 동포 등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다. 인천 남동구의 접촉지대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아파트라는 분절과 폐쇄의 공간을, 탈북자들은 집단주의적이고 관계중심적인 북한적 마음체계의 발현을 통해, 분절과 간섭의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탈북자 ‘그들끼리의’ 모임과 사회적 소수자인 탈북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남한사람의 방문이 공간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아파트는 탈북자가 중국과 한국에서 자본주의적 문화를 학습했음에도, ‘신체화된 마음’의 전면적 체제전환이 한계적임을 확인하게 한 접촉지대다. 다른 한편, 논현동의 아파트는, 탈북자의 집단거주라는 환경변화에 직면한 남한주민의 ‘연장된 마음’이 구성되는 계기를 제공한다.³⁹⁾ 남한사람들은 같은 남한사람들보다 탈북자들에 대해, 인지적·정서적 측면에서 부정적 태도가 강했고, 사회적 거리감이 크며, 신뢰는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다수는, 한국사회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임금노동자’로 진입하고 있다.⁴⁰⁾ 임금노동자는 생존을 위해서 노동력을 자본에 판매한다. 실업이 존재하는 가운데, 임금노동자 내부에 경쟁이 발생하게 된다. 노동계급 내부의 경쟁은 노동자들을 개별화시키고 연대를 어렵게 한다. 그 결과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과 노동 간에는 권력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39) 이수정·양계민, “북한출신주민과의 지역사회 내 접촉수준에 따른 남한출신주민의 태도의 차이: 인천 논현동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1호(2013).

40) 윤철기, “북한이탈주민의 노동권과 마음의 통합: 인천시 남동구의 비정규직·비공식분야 노동자의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제7권 2호(2014).

자본은 노동의 고용부터 노동의 배치, 노동시간과 강도, 고용, 임금배분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탈북자들은 저임금 노동력이 되는 경우가 많다. 탈북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의 노동시장에 필요한 기술과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에는 경제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산업, 특근, 야근 같은 것들이 없을 정도로 공장가동률이 현저히 낮았지만, 한국의 공장들은 그에 비해서 노동시간이 길고 강도도 센 편이다. 탈북자들은 북한과의 비교할 때 높은 노동강도와 한국노동자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인 저임금 상태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남한기업의 사장이나 직장 상사 및 동료들과 교류가 없는 경우에 높은 노동강도와 낮은 임금수준에 대한 불만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회사에 적응을 잘한 경우에도 탈북자들이 승진이나 임금수준면에서 남한사람들과 비교할 때 뒤처지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상실감을 가지고 있다.⁴¹⁾

서비스 분야에 고용된 탈북자 노동자들은 남한사람을 그 서비스를

41) 다양한 국가적 지원을 가진 이주노동자가 노동력을 판매하고 있는 인천 남동구 지역에서, 탈북자들은 이주노동자와 같은 다른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첫 번째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연대의식을 가지게 되는 경우이다. 탈북자들은 남한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인식하게 되면서, 다른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해서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다. 탈북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가진 문제를 직접 체험함에 따라 다른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이 가진 문제점 역시 심각하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두 번째는 다른 이주노동자와의 경쟁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이다. 탈북자는 이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국적을 가진 이주노동자들보다 오히려 더 못한 처우를 받는다고 느낄 때는 남한 사장에 대해서는 서운함을,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경쟁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탈북자는 엄연히 한국인이기 때문에 다른 국적을 가진 이주노동자보다 못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소비하는 고객으로 만나고 있다. 북한생활에 익숙한 탈북자에게 남한의 서비스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사례다. 탈북자들은 남한의 음식점이나 술집에서의 서비스가 과도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서비스 노동 혹은 감정노동에 대해서 탈북자들의 피로도는 남한사람과 비교할 때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더욱 힘든 점은 남한의 손님들과의 관계에 있다. 남한 사람들은 음식을 주문하거나 다른 서비스를 요구할 때, 용어나 단어가 생소해서 말을 못 알아들으면 곧바로 다른 사람을 부른다. 이렇게 되면 같이 일하는 다른 동료들에게 주문이 몰리게 된다. 결국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것 때문에 손님은 물론 동료들의 눈치를 보는 일이 생기게 된다. 이 경우 탈북자 가운데는 자신의 말과 말투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느낄 정도로, 자기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한다. 그리고 이른바 ‘팁’을 주는 문화 역시 낯설게 느끼고 있다. 고마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동정을 받는 것 같아 언제나 기분이 좋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지역에서 신체화된 마음체계가 새로운 환경인 남한의 서비스 문화와 충돌하는 지점 가운데 하나다.

국외의 접촉지대인 영국 런던 근교의 뉴몰든에서는 남북한 이주민 모두 사회적 소수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⁴²⁾ 따라서 인천 남동구 논현동과 달리 남한사람이 다수자고 북한사람이 소수자인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약 5000명 미만의 남한 이주민이 먼저 정착한 공간에 2004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650여 명의 숫자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자인 탈북자가 난민으로 이주한 접촉지대라는 점에서 자원의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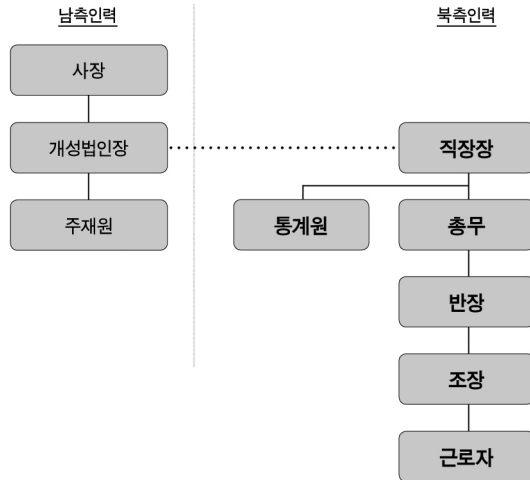
42) 이수정·이우영, “영국 뉴몰든 코리아 타운 내 남한 이주민과 북한난민 간의 관계와 상호인식,” 『북한연구학회보』, 18권 1호(2014).

대칭은 존재하지만, ‘종족경제’의 구성원으로서 남북한 사람 그리고 조선족이주민이 상호작용하며 생활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이 초국가적 접촉지대에서 나타나는 남북한 사람들의 사회관계는, ‘코리안’이라는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동일성, 남한사람 고용주와 북한사람 피고용인, 남한사람 판매자와 북한사람 구매자라는 경제적 의존관계, 난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국정부의 복지혜택을 받는 북한사람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사람의 상대적 평등성이 두드러지는 뉴몰든의 공간에서 남북한 사람의 신체화된, 연장된 마음체계는 마음체계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사람들은 남한사람을 “고맙지만은 않은 사람”, “친해지기 어려운 협력의 대상”, “더 이상 기죽지 않아도 될 상대”로 느끼고 있다면, 남한사람은 북한사람을 “불쌍하지만은 않은 사람”, “협력할 수밖에 없는 사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둘째,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으로 북한지역에서 북한사람과 남한사람이 만나는 접촉지대다. 대표적으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된 개성공업지구가 그 사례다. 이 접촉지대에서는 남북한 사람은 남한사람 관리자와 북한사람 노동자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지역에 위치한 개성공단에서는 일반적인 노사관계와는 다른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남한 입주기업 경영자 및 관리자들은 북한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북한 노동자의 대표격인 직장장을 반드시 경유해야 한다. 주로 개성 현지법인의 대표인 법인장이 북한의 직장장에게 각종 지시 관련 사항을 전달하면 북한의 직장장이 반장-조장을 거쳐거나 직접 노동자에게 지시를 하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⁴³⁾

특수한 노사관계는, 남북한 사람들의 마음체계에서 발현된다. 남한

<그림 1> 개성공단 입주기업 운영체제



자료: 통일부, 『개성공단 사업 현황 및 과제』(2012).

기업인들은 북한의 직장장이나 총무를 북한의 노동자 대표 정도로 생각한다. 남한기업에서는 수평적이 아닌 수직적 상하관계가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사람들은 남북한 사람들이 노사관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수평적 관계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지역에 있는 개성공단의 공간적 효과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남한 사람들의 마음체계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남한기업의 노사관계 관행이라면, 북한사람들의 마음체계는 장소가 주는 공간적 효과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간적 효과와 더불어 개성공단에서는 사회관계의 형성에서도 특수성이 드러난다. 개성공단에서 남북한 사람들의 사적인 접촉은 극히

43) 양문수·이우영·윤철기,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 대한 남한 주민의 태도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59호(2013), 147~148쪽.

제한된다. 북한 노동자가 남한 관리자와 만날 때, 결코 혼자 만나는 일이 없다. 그리고 개인의 간의 접촉에서도 북한당국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남북한 관계의 경색 국면일 때, 개성공단에서 남북한 사람들의 관계와 남북한 관계가 좋을 때의 관계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개성공단에서 남북한 사람들의 관계를 통제하거나 영향을 주는 외부적 요인이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 사람들의 태도가 주목된다. 북한 노동자들의 남한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이 약화되고 있다.⁴⁴⁾ 즉, 개성공단이란 접촉지대에서 남북한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는 외적 제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마음체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지역에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접촉지대도 있다. 이 공간에서 남한정부와 시민사회단체는 공여자로 북한주민은 수혜자로 각자의 위치가 결정되어 있다.⁴⁵⁾ 이 두 주체를 매개하는 역할은 북한의 민족화해위원회와 같은 기관이 수행한다. 그러나 공여자와 수혜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는 제한되고 있다. 매개기관이 그 접촉의 차단하기 때문이다.⁴⁶⁾ 공여자-수혜자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44) 북한 주민들에 대한 태도 변화는 직접적으로 설문할 수 없다. 남한 관리자들이 인식하는 변화일 수밖에 없다. 양문수·이우영·윤철기, “개성공단의 남북한 접촉이 북한 근로자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제17권 제2호(2013).

45) 이우영,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마음의 통합,” 『현대북한연구』, 제17권 2호(2014).

46) 대북 지원단체의 활동가들을 인터뷰한 결과 공여자와 수혜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와 만남이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대북지원 활동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북한 정부가 남한의 시민사회단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북한 정부와 사람들이 국가와 시민사회에 대한 구별이

나타나는 권력관계도 이 접촉지대에서 관찰되고 있다.⁴⁷⁾ 따라서 갈등과 경쟁이 불가피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분단의 효과인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과 자기검열 그리고 개인수준에서의 경쟁의식 등이 그것이다. 더불어 감시와 통제도 남북한 마음체계 쌍방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즉, 마음체계의 발현을 막는 장치들이 작동하고 있다. 상대에 대한 지식부족과 가치 및 언어의 차이도 상호적 마음체계의 형성에 장애를 일으키는 장벽이다. 정리하면, 이 접촉지대에서 남한사람의 마음체계에서는 북한사람들에 대한 우월감과 동정심이, 북한사람의 마음체계에서는 경계심과 고마움의 공존 등이 발견된다. 추가적으로, 남북관계가 침체와 경색의 시기에 직면할 때 남북한 사람들의 서로에 대한 마음체계의 변화가 발생하고, 대북지원사업이 난항을 겪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남북한의 공식대화와 같은 접촉지대에서 남북한은 각각 정부대표의 자격으로 만난다.⁴⁸⁾ 따라서 여느 외교회담처럼 대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대화는 일반적인 외교회담과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는 유엔가입 문제를 놓고 남북한 간에 벌어졌던 신경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태우 정부는 유엔 동시가입을 추진했지만, 북한은 ‘조선은 하나다’라는 논리로 남북한 동시가입을 반대했다.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은 모두 주권을 가진 국가임을 자임하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대북지원활동에서 자주 부딪히게 되는 북한 민족화해협력위원회 참사들에게 시민단체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47) 남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북한의 기관과 주민들과 접촉할 때 검소를 강조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48) 윤철기·구갑우, “남북한 대화에서 남북한의 상호인식 변화: 노태우 정부 시기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9권 제1호(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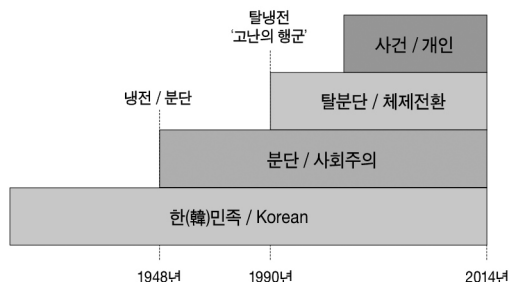
만, 남북한은 서로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일반적인 국가 간의 회담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로, 남북관계가 분단국가들의 관계, 즉 특수관계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남북회담에서는 자기 체제의 정당성을 과시하고 상대방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마음체계의 발현이 나타난다. 첫 번째는 상대방 체제의 문제점과 이데올로기를 연결시켜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회담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문제들을 상대방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이다. 마지막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식을 혼합한 것이다. 예컨대 회담이 결렬되면 그것은 상대측의 이념과 체제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대화 역시 남북한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외교의 장이다. 따라서 공동의 이익을 형성하게 되면 남북대결의 모습이 사라지게 된다. 즉 남북한의 이익이 합치되면, 협력을 지향하는 마음체계가 형성된다. 역사적으로 남북대화는 여러 차례의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4. 마음의 지질학과 마음의 통합이론: 북한적 마음체계의 탐사

1) 북한적 마음체계와 마음의 지질학

접촉지대 연구에서 발견한 북한적 마음체계는, 은유적으로 ‘마음의 지질학’이라 부를 정도의 모습이다. 북한적 마음체계의 지층구조는, 기저에 한반도라는 지리적 조건들 —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문화적 조건들 — 에 기초한 한(韓)민족의 마음과 그 위에 각기 다른 역사적 기원을 가지는 분단/사회주의 마음, 탈분단/체제전환의 마음 그리

<그림 2> 북한적 마음체계의 지층구조



고 개별 사건들과 인간들의 마음 등이 퇴적된 중층적 형태를 띠면서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림 2>는 이 지층구조의 도식화다.

이 지층구조는, 프랑스의 아날학파(Annales)가 제시한 세 가지 역사의 시간개념 — 장기지속(longue durée), 주기적 국면(conjoncture), 개별적 사건 — 과 그 시간구분에 기초하여 개념화한 집합적 마음의 구조화된 질서인 ‘집단심성’(mentalité)을 떠올리게 한다.⁴⁹⁾ 북한의 마음체계에 적용해 본다면, 한민족의 마음은 장기지속적 시간을, 분단/사회주의 마음과 탈분단/체제전환의 마음은 국면의 변화를 반영하는 사회적 시간을, 북한주민이나 탈북민의 마음은 각각 개별적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주민의 집단심성은 이 시간들과 접촉하는 공간을 가로지르며 형성된다.

우리는 이 집단심성을 마음체계란 개념으로 포착하고 있다. 한민족의 고유어인 ‘마음’을 연구의 주제어로 선호하는 이유는, 마음의 고어

49) 페르낭 브로델,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읽기』, 김홍식 옮김(서울: 갈라파고스, 2012); 뒤시앵 페브르, 『16세기의 무신앙 문제』, 김웅중 옮김(서울: 지만지, 2008).

로 알려진 ‘마음’이 ‘마중’이나 ‘맞이함’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마음이 생물과 무생물을 포함한 다른 주체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는 점에 주목하기 위해서다.⁵⁰⁾ 성격이나 품성과 같은 단어의 동의어로 마음이 사용될 때 무관계적으로 보이는 마음조차 자아 내부의 산물이지만 자아의 외부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고, 외부 세계에 표현될 때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마음의 한 구성요소가 외부의 타자를 통해 자신을 규정하며 자신(self)과 타자(other)의 경계를 긋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때, 이 경계가 사회과학적 의미에서 “나는 또는 우리는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정체성(identity)을 생산한다.⁵¹⁾

이 이론적 기반에 입각한 북한적 마음체계의 지층구조에 대한 지질학적 탐사는 두 방향으로 진행된다. 첫째, 각 지층형성의 기원을 찾는 마음의 역사학이다. 특히 사회사적 시간범주를 담지하고 있는 분단/사회주의 마음과 탈분단/체제전환의 마음이 왜 그리고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작업이다. 분단/사회주의 마음이 남한이란 타자와의 경계짓기를 통해 형성된 것이라면, 탈분단/체제전환의 마음에서는 북한 스스로가 타자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두 마음의 형성과정은 차이를 보인다. 마음의 표현이 이루어져야 그 마음의 지층을 추론하고 측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때, 정치, 경제, 사회, 사회심리 등의 분야에서 마음을 표현하는 다양한 언어적, 비언어적 매개체들을 통해 마음체계의 기원과 ‘원형’(prototype)을 찾는 작업이다.⁵²⁾

50) 문석운, 『동양적 마음의 탄생』; 아지트 바르키·대니 브라워, 『부정본능』.

51) K. Woodward, *Understanding Identity*(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52) 북한적 마음체계의 추론과 측정은 방법론의 측면에서 두 가지 난점을 지닌다.

둘째, 북한적 마음체계는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서로 기원을 달리하는 다양한 마음들이 접합(articulation)되어 있는 복합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서로 모순되는 마음들이 갈등하며 탈구(disarticulation)하고 있는 마음구성체가 마음체계다. 접촉지대 연구에서 우리는 분단/사회주의 마음으로 대표되는 북한적 마음체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경제위기가 ‘결정적 사건’(critical incident)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본다. 1990년대 초반 냉전의 해체 이후의 지정학적 변화는 냉전의 해체보다 지체된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경제위기와 결합되면서, 북한적 마음체계에 탈분단/체제전환의 마음이란 지층을 만들어냈다. 북한 국내적으로도 결정적 사건이 결정적 국면(juncture)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제도의 건설을 위한 씨앗이 되었다. 예를 들어,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였던 농민시장/장마당의 제도화는 북한적 마음체계의 탈구를 야기한 구조적 변화였다. 즉,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 부르는 199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는 1945년 해방 이후 북한의 사회주의건설에 버금갈 정도로 북한적 마음체계의 변화를 야기한 결정적 사건이었다.

북한적 마음체계가 접촉지대에 진입하여 남한적 마음체계를 만날 때, 북한적 마음체계의 첫째 층위는 한민족의 마음과 더불어 분단/사회주의 마음이다. 자신들이 살아온/살아가는 공간에서 만들어진 마음의 체계다. 인천 남동구, 뉴몰든, 개성공단, 남북대화 모두에서 발견

첫째,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북한이란 연구대상의 문제다. 둘째, 마음체계의 조작화(operationalization)를 통한 측정의 문제다. 이 두 어려움의 극복을 위해 현장연구(field research),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설문조사, 텍스트 분석, 관객분석, 결정적 사건분석 등의 방법을 결합하여 사용한다. 특히 익명의 심사자가 지적한 것처럼, 보이는 마음과 보이지 않은 마음을 다 보기 위해서는 방법론적 다원주의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되는 마음체계다. 둘째 층위는 접촉지대로 진입하기 전 서로에 대한 인식이 만들어내는 마음의 체계로 첫째 층위와 밀접히 관련된다. 특히 탈북자와 남한사람이 만나는 접촉지대인 남한지역과 해외의 접촉지대에서 탈북자에게 탈분단/체제전환의 마음이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층위는, 접촉지대라는 사회적 공간에서 남북한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호적 마음체계다.

접촉지대에서 북한적 마음체계의 접합과 탈구 그리고 남북한 사람들의 상호적 마음체계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공간적 효과’(spatial effects), ‘사회관계’, ‘자원의 분포’의 조합으로 정리된다. 첫째, 공간적 효과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공간이 사회관계를 담는 그릇이나 배경이 아니라 사회관계를 주조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탈북자가 국내에서 참여하는 접촉지대에서 탈북자는 사회적 소수자가 된다. 그러나 탈북자가 해외에서 남한사람과 만나는 접촉지대에서는 탈북자와 남한사람 모두 사회적 소수자가 된다. 즉, 탈북이란 몸의 체제전환에도 불구하고 행위주체를 호명하는 마음체계는 공간적 효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⁵³⁾ 공간의 차이가 사회관계를 상이하게 주조하고 있다. 북한지역의 접촉지대인 개성공단에서는 자본과 노동의 관계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서는 공여자와 수혜자 관계가 형성되고 있고, 남북회담에서는 특수관계와 국제관계의 이중성이 나타나고 있다. 즉 북한이란 고정된 장소도 지정학적·지경학적·지문화적 공간변화에 따라 다른 마음체계를 생산하는 장소로

53) 서구의 현상학에서도 몸이 외부의 세계를 지각하는 것을 ‘감각’으로 규정하면서, 이 외부적 맥락으로 공간, 사회, 역사, 즉 시공간을 설정한다. 모리스 메를로-퐁티, 『지각의 현상학』, 류의근 옮김(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2). 마음은 감각을 통해 외부 세계와 소통한다는 의미다.

전환된다.

둘째, 접촉지대의 사회관계는 자원의 분포에 따라 그 성격의 변이가 나타나고 있고, 사회관계의 관념적 형태인 마음체계들의 관계, 즉 상호적 마음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외의 탈북자가 연루된 접촉지대에서 탈북자는 주로 피고용인으로 등장한다. 남한사람 고용인과 탈북자 피고용인 관계 또는 남한사람 판매자 탈북자 구매자의 관계는 자원분포의 비대칭성 때문에 야기되는 전형적 사회관계다. 반면 북한지역에서 형성되는 자본과 노동의 관계, 공여자와 수혜자의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자본과 공여자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두 사회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수직적 관계가 관철되지 않는 이유는 북한이란 공간이 주는 제약과 공간 자체가 북한에 위치하면서 북한사람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2) 마음의 통합이론

접촉지대에서 발생하는 마음의 체계의 상호작용과 상호적 마음체계에 대한 연구는 “무엇이 사회구성원을 하나로 묶어주는가”라는 고전적 사회통합 논의를 미시적 수준에서 고찰하려는 시도다.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을 거시적 수준에서 체제의 지배 정당성이 사회구성원에 의해 인정되고 수용되는 ‘체제통합’(system integration)과 개인 및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성의 증가인 ‘사회활동의 통합’(societal integr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⁵⁴⁾ 마음의 체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54) A. Giddens, *Profiles and Critiques in Social Theory*(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연구는 거시적 사회통합의 미시적 기초를 밝히는 연구이다.

미시적 수준의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통합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방향성을 둘러싸고 세 가지의 관점이 있다.⁵⁵⁾ 첫째, 사회통합을 구성원들의 기회·권리의 평등성 확대와 소통의 확대에 기초한 연대성의 확장으로 보는 긍정적 시각이다. 둘째, 통합을 통제에 기초한 획일성의 증가로 보는 부정적 입장이다. 셋째, 사회적 관계의 조직화된 패턴을 기술하는 가치중립적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사회통합 논의에 탈근대성(post-modernity)을 도입할 경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가치와 연대성을 형성하는 과정으로서 사회통합을 바라볼 수 있다.

미시적 사회통합에 대한 우리의 규범적 시각은 탈근대적 사회통합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통합 자체가 규범성을 담지하지만, 그 시각을 선협적으로 사회통합에 부과하지 않는다. 실증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남북한 마음체계가 상호적 마음체계를 형성하는 심리과정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A가 보내는 마음의 출력을 성향적(dispositional)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할 때, A에 대한 B의 마음은 변하지 않게 된다. 즉, B의 A에 대한 마음은 고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성향의 근본적 전환은 마음의 지질학을 고려한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마음체계의 접합과 탈구의 형태만이 가능할 뿐이다. 반면 상대방의 출력을 그것이 사건이든 행동이든 상황적(situational) 요인으로 해석한다면,⁵⁶⁾

55) L. Mayhew, *Talcott Parsons: On Institutions and Social Evolution*(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56) J. Mercer, *Reputation & International Politics*(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머서는 적들이 기대와 달리 긍정적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이 상례를 벗어난 행동을 상황적 귀인으로 설명한다. 반면 적들이 부정적 기대와 일치하게 행동할 때 성향적 귀인으로 설명한다. 이 심리이론은 심리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A와 B의 마음체계가 변하며 제3의 상호적 마음의 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 마음체계와 마음체계가 만날 때, 특정한 윤리적 태도를 담지한 상호적 마음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는 이 상호적 마음체계의 형성을 마음의 통합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이 상호적 마음체계의 형성과정을 두텁게 기술하려 한다. 이론적 설명은 정확한 기술일 수 있기 때문이다.⁵⁷⁾ 접촉지대의 실증연구는 그 작업이다.

남북한 사람들의 마음체계의 상호작용은 ‘충돌’과 ‘순응’이라는 이분법뿐만 아니라 마음체계들 사이의 ‘협상’이나 서로의 마음의 체계를 새롭게 ‘구성’하여 상호적 마음의 체계를 만들어내고 있다.⁵⁸⁾ 충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살인 사건에 대해 미국 신문들은 범인의 인격적인 결함을 부각시키는 보도를 한 반면, 중국 신문들은 범인이 처했던 상황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다. 이를 일반화한 진술이다. “사회심리학에서 가장 잘 알려진 현상인 기본적 귀인 오류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설명할 때 상황적 원인보다는 행위자 내부의 원인을 더 중요하게 간주하는 경향을 말한다. ...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가정에 따르면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천성을 바꾸어야 하지만, 그것은 매우 어렵고 비생산적인 일이다. 그보다는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주고, 원치 않는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는 상황을 제거해 주는 것이 낫다. 이러한 상황 중심 윤리는 동양인의 관점에 더 일치한다.” 리처드 니스벳, 『생각의 지도』, 최인철 옮김(과주: 김영사, 2004).

57) 브루노 라투르, 『인간·사물·동맹』. 두터운 기술은 또한 공식담론이 은폐하거나 구조적 설명이 간과하는 행위자들의 일상을 복원함으로써 공식담론이나 구조적 설명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과 모순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박순성·고유환·홍민, “북한 일상생활 연구의 방법론적 모색,” 『현대북한연구』, 제11권 3호(2008).

58) 상호작용의 네 결과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이 틀을 이용해 분석한, 신옥희, 『순응과 저항을 넘어서』(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를 인용한 것이다. 물론 충돌과 순응 사이는 인위적으로 결절의 지점이 확정되지 않는 연속선(continuum)이다. 즉, 협상과 구성이 혼합된 형태도 존재할 수 있다. 이 사고의 원형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생산물의 질이 하락했을 때, 소비자의 선택으로 ‘탈출(exit)’, ‘저항(voice)’, ‘충성(loyalty)’을 제시한 A. Hirschman, *Exit, Vo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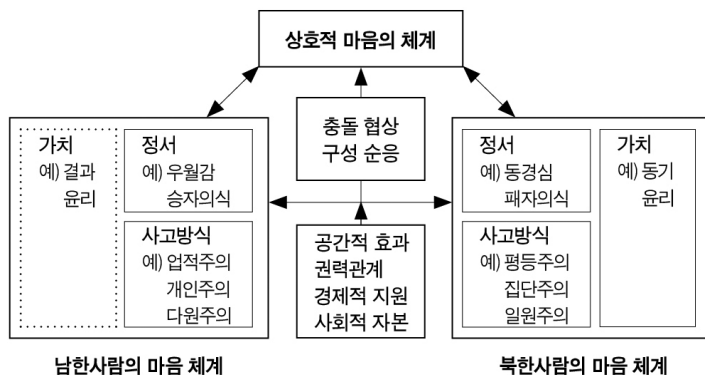
돌이 상호적 마음체계의 형성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순응은 일방의 타방으로의 흡수일 수 있다. 즉 접촉지대에 진입하기 전의 남북한 마음체계가 유지되는 형태다. 접촉지대의 대책에 공동체가 있다면, 충돌과 순응은 접촉지대와 공동체의 순수한 형태다. 반면 협상과 구성은 남북한 마음체계의 상호 변형이 발생하는 선택지다. 협상과 구성이, 차이를 인정하지만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만들어 가면서 연대할 수 있는 상호적 마음체계의 형태라는 의미다. 협상과 구성에서는, 소통을 기반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고 따라서 소통과 같은 상호작용의 형태에 대한 이론적 추가가 필요하지만,⁵⁹⁾ ‘기억의 재구성’과 마음체계의 ‘새로운 지층’의 형성을 통한 남북한 마음체계의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림 3>는 상호적 마음체계의 형성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접촉지대 연구는 협상과 구성을 내용으로 하는 상호적 마음체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인천 남동구 연구에 따르면, 탈북자와의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탈북자들을 긍정적으로 느끼고, 사회적 거리감도 적으며, 이해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접촉의 지점을 만드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s, and States(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선택지에 대한 도식화는, 자발적 결사체, 노동조합, 정당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상호적 마음체계의 형성을 도식화할 목적으로 이 선택지를 활용한다.

- 59) “마음과 합심 개념의 용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포착한 것은 소통 행위이다. 이성과 감성을 포괄하는 총체로서 마음 개념은 사회관계를 매개하는 핵심적 실체이며, 마음의 소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합심은 또 하나의 새로운 의사소통의 단위로 규정할 수 있”다. “마음을 매개로 한 합심이라는 소통은 소통양식의 질적 단계에서 가장 심화된 형태로 볼 수 있는 동조적 소통양식에 다름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존의 소통이 합심이라는 소통양식 안에서 중요한 소통 영역이라는 점도 밝혀낸다.” 유승무·박수호·신종화, “‘마음’의 사회학적 재발견과 ‘합심’(合心)의 소통행위론적 이해: 조선왕조실록의 용례 분석에 근거하여,” 『사회사상과 문화』, 28집(2013).

<그림 3> 상호적 마음체계의 형성과정



는 것이 서로의 이해에 기초한 사회통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⁶⁰⁾ “이질적·적대적 문화와 주체의 ‘불평등한’ 교차공간인 인천 남동구에서도 마음체계의 충돌만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발견하고 번역하는 문화번역의 과정이 발견된다.⁶¹⁾ 예를 들어 남한사람들이 탈북자를 ‘불쌍한 사람들’로 연민하며 위계화하고 타자화하는 방식의 해석들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타자를 열등한 타자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체계 내부에서 협상을 한 사례이다. 탈북자와 이웃으로 산다는 사실이 남한사회 내에서 자신들을 열등한 타자로 만든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이 내적 협상과 함께 상호적 마음체계로 발현되곤 한다. 반면 사회적 소수자인 탈북자는 인정투쟁에 돌입할 경우 남한화를 통해 스스로를 탈북자 내에서 이탈시키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이 시선은 남한주민의 계층화와 연계되어 중상

60) 이수정·양계민, “북한출신주민과의 지역사회 내 접촉수준에 따른 남한출신주민의 태도의 차이.”

61) 이수정, “접촉지대와 경계의 (재)구성.”

층과는 연대를, 임대주택 거주자인 하층을 타자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개인의 마음이 중층성과 모순성을 담지하는 사례로 순응의 상호적 마음체계의 사례라 할 수 있다.

북한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접촉지대인 대북지원사업에서는, 정서적 차원에서 공여자-수혜자 관계에서 비롯되는 남한사람의 우월의식과 북한사람의 패배의식이 저변에서 작동을 한다. 그러나 반복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적대감을 완화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회피하려는 협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사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의 마음체계를 변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효율을 지향하는 남한사람의 마음체계가 명분을 선호하는 북한사람이 마음체계가 충돌하는 현상은 접촉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다.⁶²⁾ 남북대화는 마음체계의 충돌이 가장 전형적인 접촉지대이면서 동시에 협상이 가시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개성공단과 같은 구성에 기초한 상호적 마음체계가 형성된 사례로 있지만, 남북관계의 질적 전환을 의미하는 갈등의 전환은 한계적이다.

북한지역에 만들어진 ‘상설’ 접촉지대로서 개성공단은 남북한 마음체계가 서로를 변형시켜 구성의 상호적 마음체계의 형성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공간의 지속성과 사회관계의 안정성 그리고 자원분포에 대한 서로의 인지가 일상화된 접촉지대에서 마음체계의 상호구성을 기능하게 한 동력이다. 개성공단에서의 자본-노동관계에서 남한기업 또는 북한당국 일방이 결정권을 가지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⁶³⁾ 갈등과 타협이 반복되면서,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생산 및 교육훈련 등의 영역에서 협상이 발생하고 있는

62) 이우영,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마음의 통합.”

63) 박천조, “개성공단 노사관계 연구”(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것이다. 남한사람과 북한사람의 갈등이 이데올로기의 충돌에서 권리와 이익을 둘러싼 갈등과 협상으로 전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북한지역에 위치한 개성공단은 접촉지대의 일상화가 구성이란 형태로 상호적 마음체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물론 사회통합의 한 형태인 상호적 마음체계의 형성이 남북한 사람들의 마음의 지층구조의 붕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경제적 접촉지대에서 북한사람들은 남한사람의 업적주의를 협상을 통해 수용하지만, 자신들의 집단주의나 일원주의를 거래하지 않기도 한다. 즉, 상호적 마음의 체계는 다양한 상호작용의 형태가 결합되어 있으면서 지배적 형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복합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마음의 통합은, 지정의가 결합되어 각기 다른 작용을 하는 복합체로서 마음이 진화한다고 가정할 때, 성립될 수 있는 실천이자 개념이다.

5. 기억의 재구성의 과제: 결론에 대신하여

접촉지대 연구에서 드러나듯, 마음은 변하기 어렵다.⁶⁴⁾ 마음이 기억을 기반으로 한다고 할 때,⁶⁵⁾ 기억은 이 복합체가 표현되는 방식이

64) H. Gardner, *Changing Minds*(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2006).

65) “나는 인식하고, 판단하고, 의사결정하고, 실행한다. 그러나 그 마음의 작동은 모두 과거에서 경험하고, 배우고, 기억한 정보와 조합을 통해 수정되고, 이미지화하는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친다. 현재의 뇌 과학은 여기까지 밝혀내고 있다. 즉 과거에 얻은 정보-기억이 없으면,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다. ... 익숙한 원고지와 펜이 거기에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본다.” 오이 겐, 『치매 노인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안상현 옮김(성남: 윤출판, 2013), 135~136쪽.

고 따라서 기억의 재구성이 마음체계의 변화에 필수적이다. 기억하기는 정보를 입력하고(encoding), 저장하며(storage), 검색하는(retrieval) 과정이고, 내부기억장치와 외부기억장치, 정보처리절차 등으로 구성된다.⁶⁶⁾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을 외부기억장치를 상실한 몸의 체제전환의 사례다. 마음의 지질학은 달리 표현하면 기억의 지층구조에 대한 탐색이다. 그 기억의 과정은 정치적이다. 즉, 기억은 선택적이고, 해석적인 과정이다. 특히 기억의 목적이 미래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것이라 할 때,⁶⁷⁾ 기억의 재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상의 상호적 마음체계로, 기억의 재구성이 가능하다면 상호적 마음체계의 구성이란 방식으로 접촉지대와 공동체란 이분법으로 환원되지 않는 남북한 사회통합의 형태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 접수: 3월 15일 / 수정: 3월 30일 / 채택: 4월 10일

66) J. Foster, *Memory: A Very Short Introduction*(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세 가지 종류의 기억이 언급된다: 절차적(procedural) 기억, 의미적(semantic) 기억, 삽화적(episodic) 기억.

67) 미치오 카쿠, 『마음의 미래: 인간은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가』, 박병철 옮김(파주: 김영사, 2015), 182~183쪽. 익명의 심사자의 지적처럼, 사회통합은 기억의 통합이다. 마음의 지질학에서 발견되는 누적적 축적 서사(narrative)가 마음체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적(constitutive) 서사를 발명하는 것이 사회통합이란 의미다. 제프리 K. 올릭, 『기억의 지도』, 강경이 옮김(서울: 옥당, 2011) 참조.

참고문헌

1. 국내 자료

1) 단행본

가브리엘, 마크 A.(Gabriel, Mark A.),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마음 엿보기』, 최상도 옮김(서울: 글마당, 2011).

강진호, “마음을 이해하는 서양철학의 세 가지 전통,”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엮음, 『마음과 철학: 서양편 상』.

김기현, “환원적 물리주의,”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엮음, 『마음과 철학: 서양편 상』.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파주: 문학동네, 2009),

노스, 더글러스(Douglass North), 『제도·제도변화·경제적 성과』, 이병기 옮김(서울: 한국경제연구원, 1996),

니스벳, 리처드(Richard Nisbett), 『생각의 지도』, 최인철 옮김(파주: 김영사, 2004).

대닛, 대니얼(Daniel Dennett), 『마음의 진화』, 이희재 옮김(서울: 사이언스북스, 2006).

데리다, 자크(Jacques Derrida), 정승훈·진주영 옮김, 『문학의 행위』(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3).

라투르, 브루노(Bruno Latour), 『인간·사물·동맹』, 홍성욱 옮김(서울: 이음, 2010).

메를로-퐁티, 모리스(Maurice Merleau Ponty), 『지각의 현상학』, 류익근 옮김(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2).

몬터규, 리드(Read Montague), 『선택의 과학: 뇌과학이 밝혀낸 의사 결정의 비밀』, 박중서 옮김(서울: 사이언스북스, 2011).

문석윤, 『동양적 마음의 탄생』(파주: 글항아리, 2013).

브로텔, 페르낭(Fernad Braudel),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읽기』, 김홍식 옮김(서울: 갈라파고스, 2012).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엮음, 『마음과 철학: 불교편』(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_____, 『마음과 철학: 서양편 상』(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_____, 『마음과 철학: 서양편 하』(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_____, 『마음과 철학: 유학편』(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신옥희, 『순응과 저항을 넘어서』(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신현정 외, 『마음학』(서울: 백산서당, 2010).

심광현, 『맑스와 마음의 정치학: 생산양식과 주체양식의 변증법』(서울: 문화과 학사, 2014).

오이 겐(大井 玄), 『치매 노인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안상현 옮김(성남: 윤출판, 2013).

올릭, 제프리 K.(Jeffrey K. Olick), 『기억의 지도』, 강경이 옮김(서울: 옥당, 2011)

카쿠, 미치오(Michio Kaku), 『마음의 미래: 인간은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가』, 박 병철 옮김(파주: 김영사, 2015).

코젤렉, 라인하르트(원어), “개념사와 사회사,” 『지나간 미래』, 한철 옮김(서울: 문학동네, 1998).

파스칼, 『팡세』, 이환 옮김(서울: 민음사, 2011).

페브르, 뤼시앵(Lucien Febvre), 『16세기의 무신앙 문제』, 김응중 옮김(서울: 지만 지, 2008).\

2) 논문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을 이론화하기: 기초개념들과 설명논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8권 4호(2014)

박가분, “변신하는 리바이어선과 감정의 정치,” 『창작과 비평』, 제42권 제4호 (2014년)

박순성·고유환·홍민, “북한 일상생활 연구의 방법론적 모색,” 『현대북한연구』, 제11권 3호(2008).

박천조, “개성공단 노사관계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4).

양문수·이우영·윤철기,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 대한 남한 주민의 태도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59호(2013),

_____, “개성공단의 남북한 접촉이 북한 근로자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17권 2호(2013).

- 유승무·박수호·신종화, “‘마음’의 사회학적 재발견과 ‘합심’(合心)의 소통행위론적 이해: 조선왕조실록의 용례 분석에 근거하여,” 『사회사상과 문화』, 28집(2013).
- 윤철기, “북한이탈주민의 노동권과 마음의 통합: 인천시 남동구의 비정규직·비공식분야 노동자의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제7권 2호(2014).
- 윤철기·구갑우, “남북한 대화에서 남북한의 상호인식 변화: 노태우 정부 시기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9권 1호(2013).
- 윤철기·양문수, “북한 연구의 미시적 접근과 남북 접촉시대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16권 2호(2013).
- 이수정, “접촉지대와 경계의(재)구성: 임대아파트 단지 남북한 출신 주민들의 갈등과 협상,” 『현대북한연구』, 제17권 2호(2014).
- 이수정·양계민, “북한출신주민과의 지역사회 내 접촉수준에 따른 남한출신주민의 태도의 차이: 인천 논현동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7권 1호(2013).
- 이수정·이우영, “영국 뉴몰든 코리아 타운 내 남한 이주민과 북한난민 간의 관계와 상호인식,” 『북한연구학회보』, 18권 1호(2014).
- 이우영,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마음의 통합,” 『현대북한연구』, 제17권 2호(2014).
- 정원재, “유학에서 보는 마음: 거울과 저울, 또는 사랑과 앎의 변주곡,”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엮음, 『마음과 철학: 유학편』.

2. 국외자료

1) 단행본

- A. Giddens, *Profiles and Critiques in Social Theory*(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 _____, *Social Theory and Modern Sociology*(Oxford: Basil Blackwells, 1987).
- A. Hirschman, *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s, and States*(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 B.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London: Verso, 1983).
- D. Borchert, ed., *Encyclopedia of Philosophy* Vol. 2(Farmington Hills: Thomson Gale, 2006).
- D. Mitrany, *A Working Peace System*(Chicago: Quadrangle Books, 1966).
- G. Butler & F. McManus, *Psychology: A Very Short Introduction*(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_____, *Psychology: A Very Short Introduction*(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H. Gardner, *Changing Minds*(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2006).
- J. Foster, *Memory: A Very Short Introduction*(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J. Mercer, *Reputation & International Politics*(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 K.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Reading: Addison-Wesley, 1979).
- K. Woodward, *Understanding Identity*(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L. Mayhew, *Talcott Parsons: On Institutions and Social Evolution*(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 M. Rowlands, *The New Science of the Mind: From Extended Mind to Embodied Phenomenology*(Cambridge: The MIT Press, 2010).
- S.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2) 논문

- M. Pratt, “Arts of the Contact Zone,” *Profession*, 91(1991).
- P. McLaughlin, “Descartes on Mind-Body Interaction and the Conservation of Motion,” in Tom Sorell, ed., *The International Library of Critical Essays in the History of Philosophy: Descartes*(Brookfield: Ashgate, 1999).

North-South Contact Zone and Integration Theory of Minds: A Theory Proposal for “Geology of Mind”

Lee, Woo Young(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Koo, Kab Woo(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nstruct an integration theory of minds of two Koreans as well as a theory on the North Korean system of mind as a component of the integration theory through empirical research on contact zone between peoples of North and South Korea. The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Chapter 2 deals with the definition of contact zone and the system of mind. Chapter 3 introduces empirical research outcome on the contact zon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the variables that determine the mind system of the North Korean populace including the North Korean resettlers in South Korea, as they constitute an important pillar in integration of the minds. Chapter 4, on the basis of “geological”

research outcome on the North Korean mind system, proposes an integration theory for minds of North and South Koreans at a micro-level. Finally, this article raises a question on the relations between memory and mind.

Keywords: North-South social integration, contact zone, mind system, integration of minds, geology of mind, North Korean system of mind, South Korean system of mind